

제25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2011. 11. 10.

日帝 參謀本部 간첩대의 한반도 지도제작

이 호상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leehs0812@hotmail.com)

IJS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 표 목 차



I. 서론

II. 일본 육군참모본부 간첩대의 파견과 측량 배경

III. 간첩대의 측량과 정찰 루트

IV. 장교별 측량지도 개관

V. 目測圖의 분석 및 특징

VI. 요약 및 결론

2

I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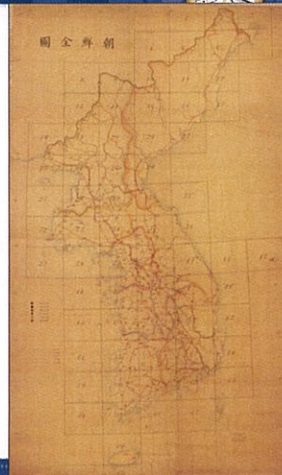
-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 육군성의 참모본부 전신인 '제6국'을 통하여 최초로 해외첩보활동을 개시
- 1878년부터 일제 참모본부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에 의해 지도가 제작된 구한말 지도는 이미 일련의 선행연구(남영우, 1992; 1997; 2007; 2009)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음
- 그러나 그들이 조선말 비밀리에 측량한 결과물인 지도의 소재와 지도의 도식과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음

3

I -2. 연구방법 및 자료



- 2008년~2009년, 일본군 장교들의 측적을 기록한 색인도와 측량지도를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그 소재를 확인하고 조사
- 본 연구에서 고찰한 지도는 1878년(明治 11년)~1891년(明治 24년)에 걸쳐 측량된 간첩대의 지도들을 분석대상
-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지도 중 磯林, 渡邊, 海津, 岡, 三浦, 柄田, 柴山 7명의 장교가 제작한 지도를 대상
- 120~130여년 만에 한일양국에서 처음 공개된 지도들로 도식이 확정되기 이전인 중세 말 또는 근대 초기의 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지도학사에 중요한 자료



I-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장교들이 한반도에서 비밀측량을 실시한 배경과 그들의 정찰루트를 추적함으로써 측량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고, 1895년 한반도의 제1차 지형도가 측도되기 이전에 일제의 첩보장교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분석

특히, 지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지명표기 방식, 등고선·축척·기호 범례 등 도식의 특징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항장 지도에 대하여 고찰

이를 통하여 중세 말 혹은 근대 초기에 일정한 도식이 확립되기 이전에 제작된 지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공개된 지도들은 우리나라 지도제작의 도식변천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5

II-1. 간첩대의 파견 경위



- 1871년 7월 28일 병무성 관제가 변경되면서 참모국이 신설
- 참모국의 하부기구로 간첩대를 두어 평상시에는 **지리 정탐지도의 편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 일본 육지측량부의 산실
- 주로 장교와 畫工들로 구성된 간첩대 요원들은 **1872년 3월 15일** 육군성으로부터 「巡檢參謀將校職務大略」이 하달됨에 따라 **간첩대로서의 활동을 시작**
- 그들 중 朝鮮組와 滿洲組는 각각 2~3명이 한 組가 되어 밀정을 시작. 당시 **간첩대의 임무는 측량**이 유일한 것이었고, 측량 이외의 업무는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사료

6

표 1. 일본 측량기구의 職制變化



시기	부서명칭
1871년 7월	兵部省 陸軍部 參謀局
1872년 2월	陸軍省 參謀局 開譯隊
1873년 4월	陸軍省 第六局
1874년 2월	陸軍省 參謀局(제5과, 제6과)
1878년 12월	陸軍省 參謀本部(지도과, 측량과)
1884년 9월	陸軍省 參謀本部 測量局 (상각측량과, 지형측량과, 지도과)
1886년 3월	參謀本部 陸軍部 測量局 (상각측량과, 지형측량과, 지도과)
1889년 5월	參謀本部 陸地測量部 (상각과, 지형과, 제도과, 수기과)

출처: 필자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2009)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참모국을 설치한 육군성은 1874년 측량도구와 유럽의 측량서적을 구입하여 번역
- 1874년말 참모국 산하에 5개 課가 7개 課로 확대
- 팽창주의의 일환으로 일본 군부는 1869년에 이미 조직된 참모국 간첩대를 활용하여 한반도 정찰. 1872년 9월에 외무대신 花房義質을 수행한 北村重賴 중좌와 別府晉介 소좌는 한반도에서 첩보활동을 개시

7

표 2. 1874년 참모국 조직과 인원의 증가



부서	개편시기		담당업무
	6월 29일	12월 31일	
국장	1	1	책임자
첩보처리	0	1	
전령사	0	2	
제1과	6	12	총무
제2과	0	2	아시아兵制
제3과	10	25	歐美兵制
제4과	0	7	兵史
제5과	20	19	地圖政誌
제6과	8	10	측량
제7과	5	5	文庫
합계	50	83	

출처: 佐藤, 1988, p.363.

- 제3과는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제도를 연구, 제5과는 **지도**를 제작. 제5과는 지도정지과로 39명의 가장 큰 부서이며, 그 다음이 제3과인 35명의 歐美兵制課
- 지도제작과 관련된 제5과와 제6과의 업무내용은 근대지도 **측량방법** 확정,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習志野]의 **지도 작성**과 **석판·동판 인쇄**의 복제 등
- 실습용으로 제작한 1:1만 축척의 나라시노 지도는 일본육군의 '꿈의 지도'로 알려져 있음

8

II-2. 간첩대의 측량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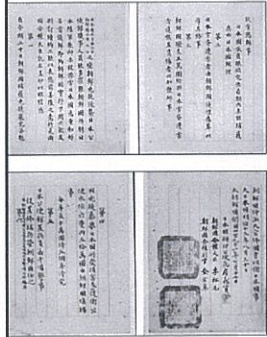


그림 1. 제물포조약 원문

- 참모장교들은 1876년의 강화도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의 발효로 1882년 12월부터 국내여행에 외교특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광역적으로 첩보활동의 전개할 계획 수립
- 강화도조약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 군사작전 시 상륙지점을 정탐하려는 의도
- 이 조약의 시행세목(조일수호조규부록) 중
제1조: 일본선박 긴급사태 때의 내지여행 허용
제2조: 사신과 관리관이 문서우송 시 비용의 사후 지불
→ 참모본부 첩보장교의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사업을 영두
- 제물포조약의 수호조규속약 중
제2조: "일본 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
→ 참모본부 장교들의 측량사업을 영두
- 조선민중들의 반발과 조선조정 저항으로 1883년 3월에 磯林 중위만 실행

9

II-2. 간첩대의 측량 배경

- ✓ 강화도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첩보장교들의 측량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
- ✓ 조약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안측량과 일본 관원 및 수행원의 내륙여행만 허용한 것
- ✓ 해안지도의 제작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륙지방에 대한 측량과 지도제작은 조약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따라서 첩보장교들의 행위는 측량침략이며 국제법 위반이었다고 규정
- ▶ 한반도에서 암약하는 장교들은 조선정복과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10

II-3. 간첩대의 측량 초기

- 1877년 참모국 소속의 海津 소위는 개항장 교섭차 조선으로 파견되는 하나부사 대리공사를 수행하면서 한반도의 정황탐색
- 판찰관이 1879년 海津 일행이 육로를 따라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조약위반이라며 저지함(조선왕조실록, 고종16년)
- 참모본부의 「歴史草案」에는 海津 소위의 비밀측량이 한반도에 대한 첩보명령의 시작으로 기록. 1879년 개항장 협정서에 조인하기 위해 하나부사 공사가 다시 조선에 왔을 때도 경인지방과 부산에서 첩보활동
- 1880년에는 어학연수생들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호리모토[堀本] 중위가 서울에 파견. 1882년에 발생한 임오군란의 와중에 조선인에 의해 살해

11

II-4. 이소바야시 대위의 사망

-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충청도 요지의 정보수집을 하던 중 공사로부터 급보를 전해 듣고 급거 귀경하던 중 磯林 대위와 어학연수생 3명이 김대흥 등에 의해 살해
- 제1대 서울주재 첩보장교였던 堀本 에 이어 제2대 장교인 磯林가 조선인에 의해 살해된 것은 조선 항일운동사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



그림 1. 이소바야시를 추모하는 신문 기사 부록(1886년 12월 11일자)
출처: 早稻田大學 圖書館, 磯林大尉3號文庫.

12

Ⅱ-4. 이소바야시 대위의 사망

- 1885년 5월 5일, 堀本와 磯林 대위 등 5명의 유골을 인천에서 도교의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 招魂式을 거행하고 합사. 이로써 그들은 일본육군의 영웅이 됨
- 장교들이 공사관 직원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들은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장교의 신분을 감추고 한반도를 정탐한 첩보원이었음



Ⅲ-1. 첩보장교의 측량

- 참모본부는 측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한반도에 파견된 첩보장교들에게 목적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目測迅速圖를 제작하도록 지시
- 측량은 나침반을 고정시킨 휴대용 제도판을 수평으로 하고 보측에 의해 거리를 측량하면서 제도하는 방법이 사용. 주로 비밀측량의 속성상 路上測度를 채택함
- 이번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지도에서 1882년 이소바야시에 의해 최초로 노상측도가 시작되었음이 규명. 일본군 장교들에 의한 측량은 1876년에 측량되어 1882년에 간행된 것이 최초의 지도임

표 3. 첩보장교의 명단과 측량지역

계급	성명	측량 지역
소위 중위 대위	카이즈[海津]	장포강 하구 및 천수만·옥구만(1878), 아산만(1879), 원산-용지원(1883), 원산-문천(1883), 원산거류지(1883), 의주(1883), 함경도(1883), 재물포-석천원(1885), 전관교-광주로(1885), 재물포거류지 주변(1885), 강원도(1885, 1886)
중위 대위	이소바야시[磯林]	인천-한성(1882), 임진강(1882), 양화진-오류동(1883), 평양(1883), 마포(1884), 재물포거류지(1884), 마포-문수산성(1884),
중위 대위	와타나베[渡辺]	경상도(1883)
대위	오카[岡]	함경도-평안도(1884), 덕원-안정(1885), 북청-중령진(1885), 한성-원산(1886)
대위	미우라[三浦]	한성-부산(1886), 한성부근(1887), 평양-영흥로(1887)
중위 대위	가라다[柄田]	순천-창원(1887), 부산부근(1888)
대위	시바야마[柴山]	대동강(1889), 영일만(1891)

주: 년도는 지도제작 시기임.

Ⅲ-2. 장교들의 정찰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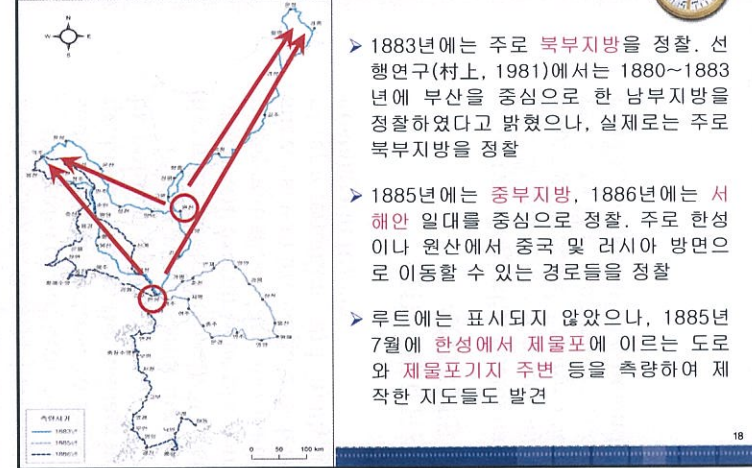
- 카이즈: 1870년대 후반에는 주로 한성에 체류, 1880~1882년과 1882~1883년에는 각각 부산과 원산에 체류, 1885년에 한성으로 귀경, 을사늑약 후 한반도 체류
- 이소바야시: 188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울에 체류
- 와타나베: 1883년부터 부산에 체류
- 오카: 주로 원산에 주둔
- 미우라: 부산 및 서울에 체류
- 가라다: 부산에서 암약
- 색인도는 원래 1894년 7월 2일에 육군문고로서 인쇄된 것이지만, 이것의 초판본(영남대 박물관)은 1875년 12월에 작성되어 이듬해 초에 간행된 지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1877년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됨

그림 2. 참모본부 장교의 정찰루트(1883~18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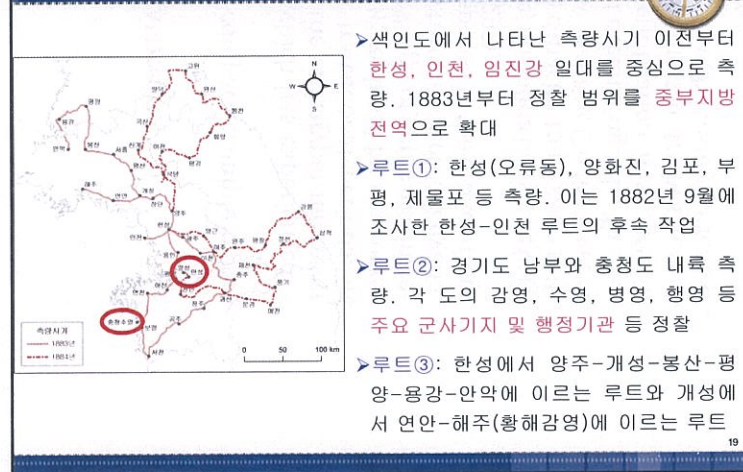
17

그림 3. 카이즈[海津] 대위 정찰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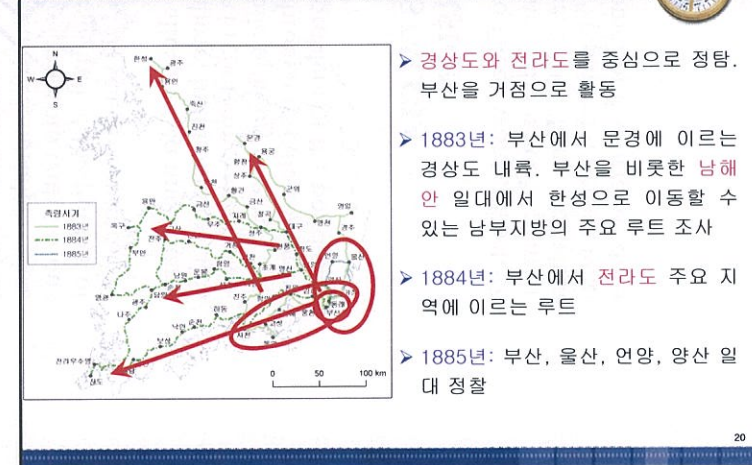
18

그림 4. 이소바야시[礮林] 대위 정찰루트



19

그림 5. 와타나베[渡邊] 대위 정찰루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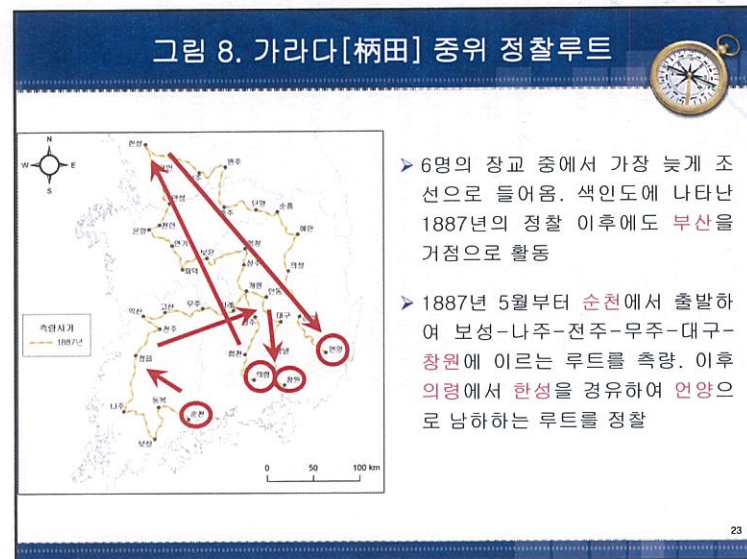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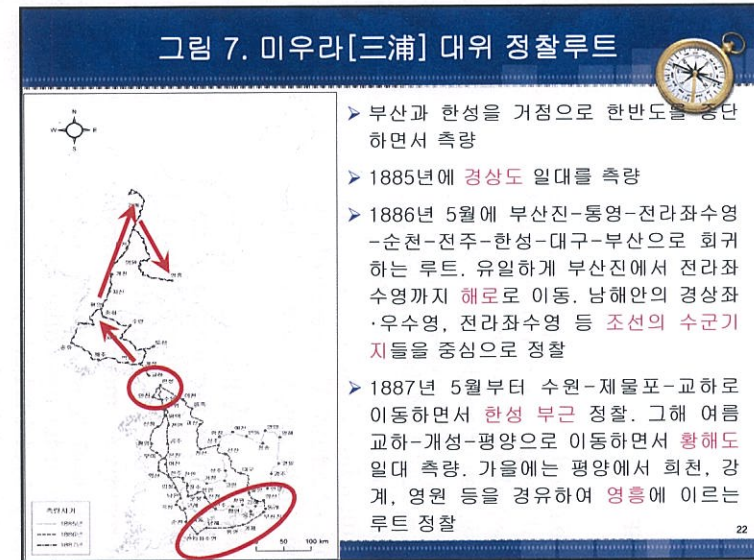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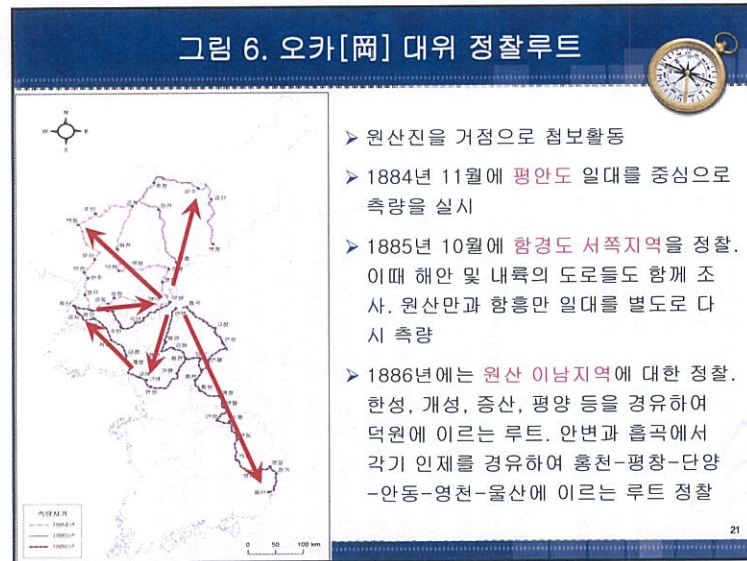


표 4. 첩보장교별 제작 지도 목록

장교명	제작연도	제작 지도의 도업명
카이즈[海津]	1883 ~ 1886년	江原沿海往復圖 I・II, 元山港居留地圖, 義州往復路上圖,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 自元山津至文川郡路上圖, 自新串至廣州路上圖, 咸鏡道路上圖, 自清物浦至石川院略圖, 清物浦基地近傍圖
이소바야시[磯林]	1883 ~ 1884년	從仁川至漢城圖, 自揚花鎭經金浦江華清物浦至梧柳洞路上圖, 平壤想像圖, 清物浦居留地圖, 麻浦近方圖, 自麻浦至文殊山城路上圖
와타나베[渡邊]	1883년	慶尙左道路上測圖
오카[岡]	1884 ~ 1886년	從京城至元山津路上圖, 從北靑至中嶺鎭路上圖, 從德源至定平取圖, 咸鏡平安兩道路上圖
미우라[三浦]	1886 ~ 1887년	京城近傍遊步期程內路上圖, 京城往復路上圖, 從平壤至永興路上草稿圖
가라다[柄田]	1887년	自全羅道順天至慶尙道昌原路上圖

▶ 지도가 없는 지역은 海津의 동해안과 서해안, 磯林의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충청도, 渡邊의 전라도, 岡의 강원도와 경상도, 三浦의 삼남지방, 柄田의 전라도 등. 제작은 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 高木(1966)는 병요지도의 정비상황을 제1기(준비시대), 제2기(실측시대), 제3기(외국제지도입수시대)로 구분. 본 연구의 지도들은 제1기와 제2기의 중간에 속하는 '초기실측시대'에 해당

24

표 5. 카이즈[海津]의 측량지도

No.	도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朝鮮國長浦江口(淺水灣沃溝灣)略圖	6만(cables), 2만8천8백	1878. 7.	해안 만일상태와 항로, 우모식
2	牙山江略圖	3만(해리와 cables 병기)	1879. 5.	1879년 8월 해군수로국 편찬지도로 수정(요카 중위의 매오), 아산만 앞대의 갯벌상태와 수상 및 조수간만의 차이를 주기, 우모식
3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	4만(일본리와 조선리 병기)	1883. 5.	원산-용지원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병례사용, 이두식 및 한글 지명 병기
4	自元山津至文川郡路上圖	4만(일본리와 조선리 병기)	1883. 5.	원산-문천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조계지도에 병례사용, 일부 도면에는 그림설명과 이두식 지명 및 한글이 병기됨
5	元山港居留地圖	2천(間과 미터 병기, 1간 약 40미터)	1883. 6.	원산 조계 상세지도, 20미터 간격의 등고선, 자락과 진북 표시
6	義州往復路上圖(自雲山至義州, 自京城至元山津, 自陽德至殷山, 從平壤至京城, 自義州至平壤)	20만(프랑스척과 일본리 병기)	1883. 8.	운산-의주 및 한성-의주에 이르는 지명과 취락(1884년), 이소바야시 매오
7	咸鏡道路上圖	20만(일본리와 프랑스척 병기)	1883. 12.	덕원-이원제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8	自清物浦至石川院略圖	2만(일본리와 프랑스척 병기)	1885. 5.	제물포-석천원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병례표시, 일부 이두식 지명 병기, 도로상태 주기
9	自箭串至廣州路上圖	2만(일본리와 프랑스척 병기)	1885. 6.	송파 및 설교이다리-남한산성에 이르는 상황, 병례표시, 일부 조선식 지명
10	清物浦舊地近傍圖	2천(일본리와 프랑스척 병기)	1885. 7.	제물포 공동묘지 일대의 상황, 1미터 간격의 등고선 사용
11	江原沿海往復圖 I·II	10만(?), 2만(?)	1885. 11. 1886. 7.	경기도-동해안 앞대의 도로 및 취락, 시가지

25

그림 2. 카이즈의 「自箭串至廣州路上圖」(1885)



26

표 6. 이소바야시[磯林]의 측량지도

No.	도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從仁川至漢城圖	2만3천(?)	1882. 8.	세토구치[瀬戸口] 대위와 함께 임오군란 발발시 인천-한성에 이르는 노상측도
2	自楊花鎭經金浦江華清物浦至梧柳洞路上圖	1만(?), 4만(?)	1883. 9.	양화진-김포-강화-제물포-오류동에 이르는 주요시설과 가구수
3	平壤想像圖	2만(?)	1883. 7.	시가지도, 성곽
4	臨津江之圖	4만(?)	1882. 7.	하천의 폭과 수심, 일부 이두식 및 조선식 지명표기
5	清物浦居留地圖	? (?)	1884. 7.	조계, 일본영사관, 포대 위치
6	麻浦近方圖	1만(미터)	1884. 9.	마포 일대의 주요시설
7	自麻浦至文殊山城路上圖	4만(?)	1884. 10.	마포-양화진-문수산성에 이르는 주요시설과 가구수

27

그림 3. 이소바야시의 「從仁川至漢城圖」(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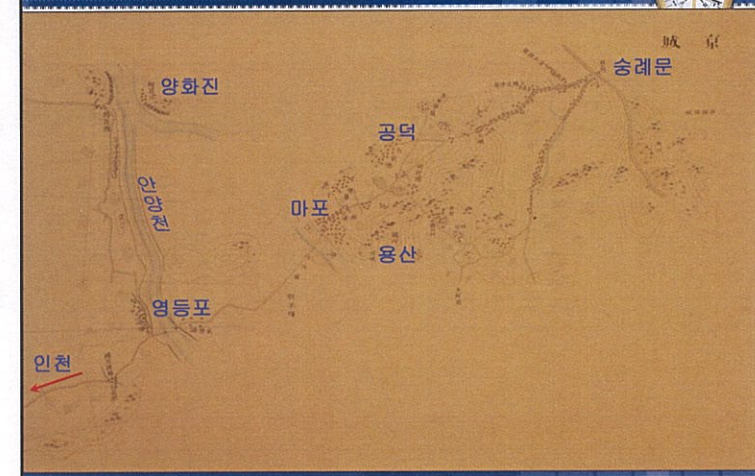


표 7. 미우라와 오카의 측량지도

미우라[三浦]의 측량지도				
No.	도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京城往復路上圖(自利川至南州, 從新院至安城渡, 自安城渡至京城, 從京城至利川, 從全羅左水營至新院, 自南州至釜山)	? (?)	1886. 5.	이천-상주, 상주-부산, 신원-안성, 안성-한성, 한성-이천-남원-순천-전라좌수영-신원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일부 한글지명, 고도표기
2	京城近傍遊步路程內路上圖(從漢江渡場經果川安陽蛇川到清物浦, 遊步路程圖, 從漢城到交河)	10만(?) 4만(?)	1887. 6. 1889. 5.	한강-과천-시흥-안양-수원-안산-제물포, 김포-오류동-동진-인천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일부 이두식·조선식 지명표기, 고도표기
3	從平壤至永興路上草稿圖(上稿, 下稿)	20만(?)	1887. 가을	평양-회천-영흥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일본공사관원으로 여행하였음을 주기

오카[岡]의 측량지도				
No.	도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咸鏡平安兩道路上圖	20만 (프랑스척)	1884. 11.	평양-회천-위천-정평에 이르는 도로 및 지명, 고도표기
2	從德源至定平見取圖	20만 (칼로미터)	1885. 10.	덕원-정평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고도표기
3	從北靑至中嶺路上圖	20만 (칼로미터)	1885. 11.	북청-중령진(갑산, 상수, 후창, 장진)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고도표기
4	從京城至元山津路上圖	20만(일본리와 프랑스척 병기)	1886. ?	한성-원산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우도 9식, 고도표기

그림4. 오카의 「從德源至定平見取圖」(1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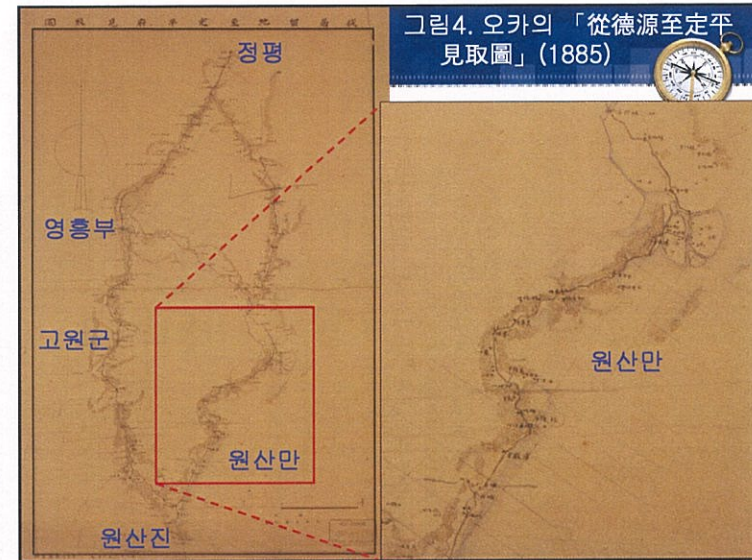


표 8. 가라다·시바야마·와타나베의 측량지도

가라다[柄田]의 측량지도				
No.	도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自全羅道順天至慶尙道昌原路上圖(從茂朱至大邱路上圖)	20만(?)	1887. 6.	순천-나주, 나주-금구, 금구-무주, 대구-창원, 무주-대구에 이르는 도로 및 취락, 우도식과 등고선식 결합, 고도표기
2	釜山近傍目算測圖	4만(미터)	1888. 5.	김해-웅천-다대포진 일대의 해안, 등고선식, 고도표기

시바야마[柴山]의 측량지도				
No.	도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大同江概側圖	? (해리)	1889. 8.	대동강 수심, 조류상태, 경위도 주기
2	迎日灣略圖	20만(?)	1891. 5.	영일만 일대의 도로 및 취락, 수심, 경위도 표시, 우도식

와타나베[渡邊]의 측량지도				
No.	도업명	축척(단위)	제작 시기	주요 내용
1	慶尙左道路路上測圖	20만 (칼로미터)	1883. 6.	부산-상주-문경, 부산-경주-포항-군위에 이르는 도로 주변상황, 일부 이두식·조선식 지명표기

그림5. 가라다의 「釜山近傍目算測圖」(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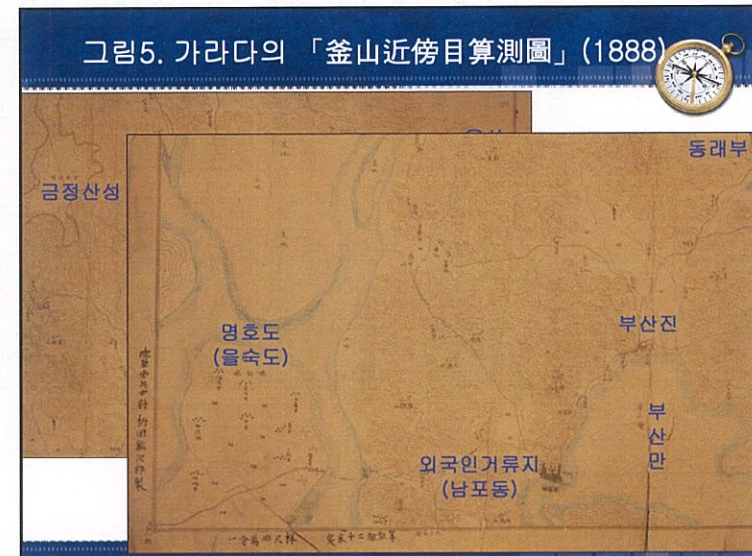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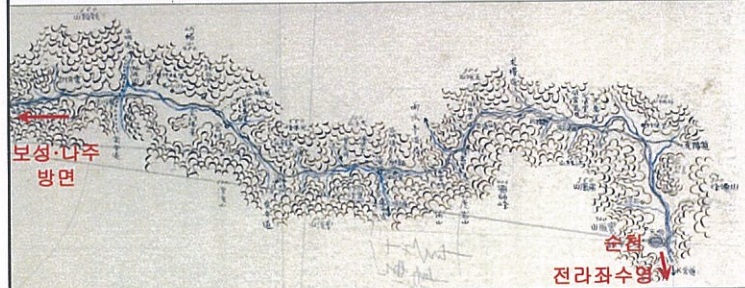


그림 6. 路上測度の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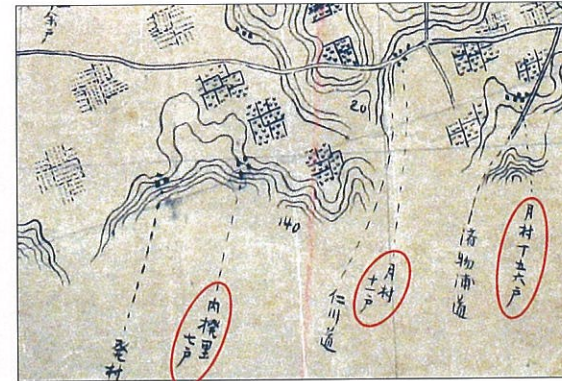


가라다의 「自全羅道順天至慶尚道昌原路上圖」(1887)

- 노상측도는 面的인 지도라기보다는 線的인 지도로 일본의 근대 지도학자 이노우[伊能忠敬]의 측량기법에서 유래
- 노상측도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목적지로 측량할 수 있다는 특징

33

그림 7. 호구수가 기재된 이소바야시의 「自麻浦至文殊山城上圖」



- 해발고도, 도로명, 촌락의 호구 수 기재

34

그림 8. 일본어 이두식 지명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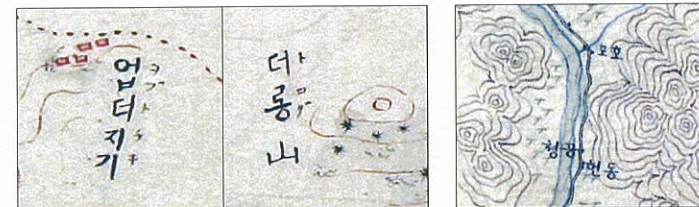


이소바야시의 「臨津江之圖」(1882)

- 石串里(돌고지), 席浦渡(독개나루), 孫石渡(손돌나루) 등 일본어의 유사한 발음으로 지명표기
- 지도 속에 주어진 조선식 또는 이두식 지명표기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지명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35

그림 9. 카이즈와 미우라 지도의 한글표기 지명



카이즈의 지도(좌)의 「自元山津至文川郡路上圖」, 미우라(우)의 「京城往復路上圖」.

36

그림 10. 수심이 기재된 시바야마와 카이즈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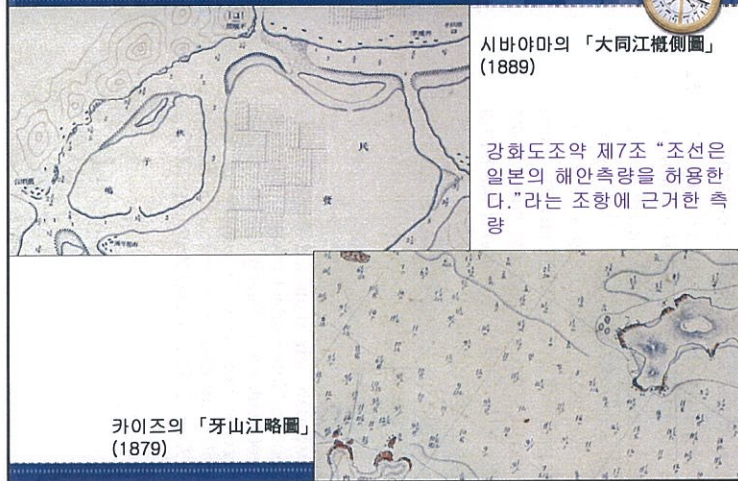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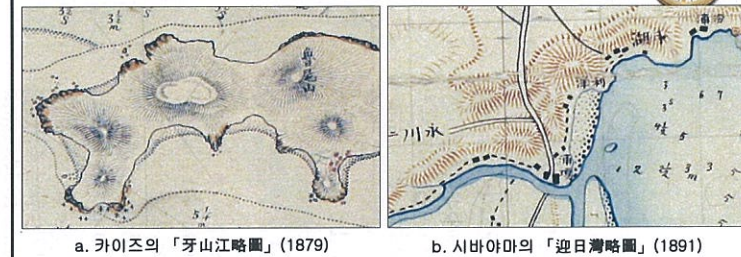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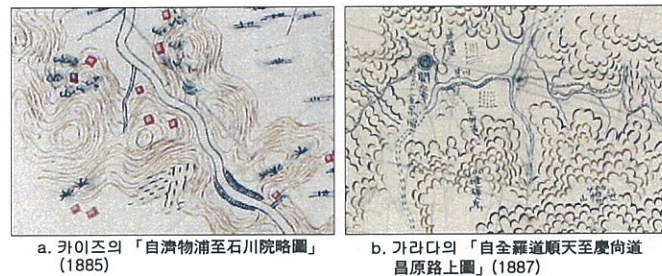
그림 11. 우모식 기법의 지형표시 사례



- 지형의 고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우모식과 등고선식이 채용
- 우모식은 지도에 지형기록을 깃털 모양의 선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 고도를 표시해야 할 지역에서는 간단한 斜角儀를 이용하여 수평목측거리를 측정하고 고도를 계산.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약식등고선을 사용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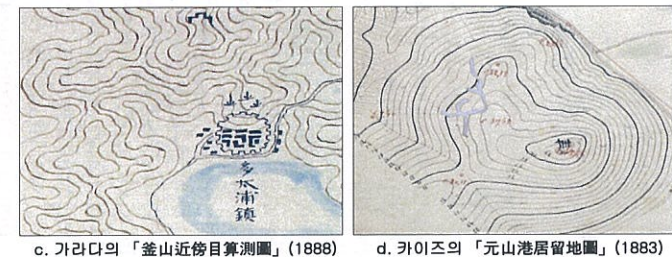
그림 12. 약식 등고선 기법의 고도표시 사례



- 고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등고선을 개략적으로 표시
- 산악지대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등고선을 형상화

39

그림 12. 약식 등고선 기법의 고도표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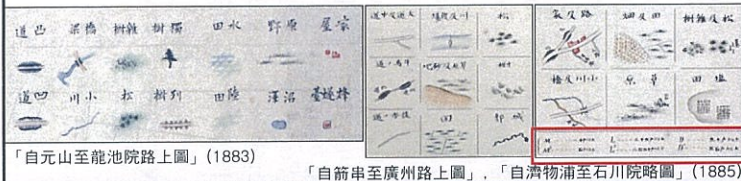


- 등고선으로 지형을 표시 등고선의 기준은 불규칙
- 2미터 간격의 등고선이 조밀하게 표시

40

그림 13. 기호범례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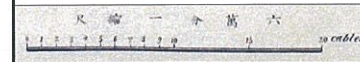
- 일본은 1879년 도식을 정하였으나, 비밀측량의 속성상 기호범례를 대부분 생략
- 카이즈의 지도에서만 범례 발견
- 가옥, 봉수대, 별판, 소택, 전담, 나무, 가로수, 잡목, 소나무, 나무터, 교량, 소하천, 도로, 성곽, 영전 등의 기호
- 취락의 호구 수에 대한 기호가 표시: M(10호 이상), M'(100호 이상), L(25호 이상), L'(250호 이상), D(50호 이상), D'(500호 이상)
- 다른 지도에는 취락의 호구 수는 메모 형식의 글자로 주기
- 기호범례가 없는 지도에는 일부 도곽, 그림, 글자로 표기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1883)

「自箭串至廣州路上圖」, 「自濟物浦至石川院略圖」(1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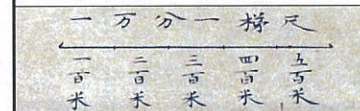
그림 14. 다양한 축척 표시의 사례



① 'cables' 단위: 海津, 1878, 「朝鮮國長浦江口略圖」



② 'kilometer'와 '里' 단위: 渡辺, 1883, 「慶尙左道路上測圖」



③ '百米' 단위: 磯林, 1884, 「麻浦近方圖」

- 일본에서 도식이 체계화된 것은 1886년 이후

- 文數法과 分數法이 혼용

- 바(bar)와 거리의 측정단위를 일정한 원칙 없이 표시

- 카이즈는 해안을 측량할 때 케이블(cables)을 측정단위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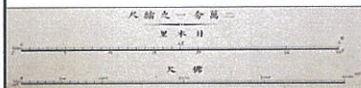
- 케이블은 해상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 鏈으로, 미국해군은 1케이블을 219m, 영국해군은 185m를 의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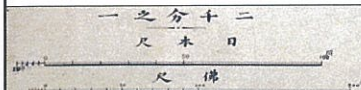
그림 14. 다양한 축척 표시의 사례



④ '日本里法'과 '朝鮮里法' 단위: 海津, 1883,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



⑤ '日本里'와 '佛尺' 단위: 海津, 1885, 「自箭串至廣州路上圖」



⑥ 日本尺 '間'과 佛尺 '米' 단위: 海津, 1885, 「濟物浦墓地近傍圖」

- 그림 14④의 「自元山至龍池院路上圖」에는 日本里法과 朝鮮里法을 병기. 일본의 리와 조선의 리가 상이하기 때문

- 카이즈는 1883년 이후에 제작한 지도에는 日本尺과 佛尺을 병기

- 불척은 프랑스의 지도에서 사용하던 단위로 m 혹은 km를 의미. 이 무렵 일본의 도식은 '메이지13년식(1880년)'이라 불리기도 하는 프랑스식 도식 채택

- 이러한 축척표시법은 후일 1895~1906년에 간행된 1:5만 축척의 군용지도(제1차 지형도)에도 적용

43

V-3. 개항장 지도



그림 15. 원산 외국인 거류지(카이즈, 1883, 「元山港居留地圖」)

- 일본은 원산과 인천에 전관거류지를 설정하고 주거지 조성

- 카이즈는 1883년 6월 「元山港居留地圖」 작성

- 1: 2,000의 대축척지도

- 흑색, 적색, 청색의 3색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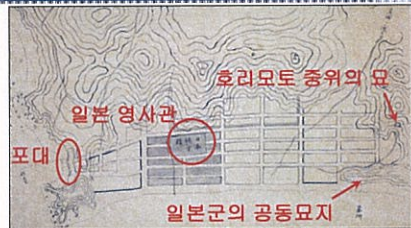
- 등고선은 2미터 간격으로 표시

- 자복과 진복의 차이는 5° 45'

- 지도상에 영사관 건물을 비롯한 해관, 상법회의소, 병원 등 표시. 초기의 조계지 경관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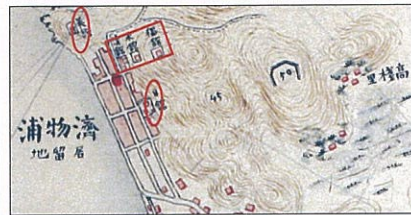
44

그림 16. 인천 외국인 거류지의 지도



a. 이소바야시의 「濟物浦居留地略圖」 (1884)

- ▶ 약도로 작성되어 축척 표시가 없음
- ▶ 조계의 도시계획 수립 시 블록의 배치를 알 수 있음



b. 카이즈의 「自濟物浦至石川院略圖」 (1885)

- ▶ 축척 1 : 2만
- ▶ 거류지에서 한성까지 이르는 교통로 표시
- ▶ 영국, 청, 미국, 독일, 일본의 영사관 위치 표시

45

V-4. 측량지도의 행방

- 육지측량부의 지도 중 '外邦圖'라 불리는 외국지도는 일본 국회도서관, 자원과학연구소, 도쿄제국대, 도호쿠제국대, 교토제국대 등으로 반출
- 일부는 미군에 의해 압수되어 미국으로 반출. 미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일부는 쓰레기장에 방치되거나 소각. 그 가운데 한반도 지도들은 주로 교토대학과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
- 대부분의 한반도 지도들은 '陸軍省寄贈' 혹은 '海軍省寄贈'이란 도장이 날인됨.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은 패전하자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한국에 방치한 것들도 다량 존재하지만, 을사늑약 이전에 제작한 것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모두 폐기 또는 반출
- 1883~1887년 제작된 지도들은 유출경로를 파악할 수 없으나 미군에 압수되어 미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사료.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는 전무하며, 미국의 국회도서관 지도과에서 보관하다가 1962년 1월에 분류작업을 마침. 미국의 경우 육지측량부 지도는 현재 의회도서관 이외에도 클라크 대학, 위스콘신대학, 미국지리학회(AGS) 등지에 분산

46

VI. 요약 및 결론

- 1) 참모본부는 한반도 파견장교들에게 목적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路上測度와 目測迅速圖를 제작하도록 지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1885년경부터 노상측도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882년 礮林에 의해 최초로 노상측도가 시작되었음이 밝혀짐. 정탐 루트 역시 종래의 연구와 다름을 확인
- 2) 정찰루트를 살펴보면, 海津는 북부지방과 강원도, 礮林는 중부지방, 渡邊와 柄田는 삼남지방, 岡는 북부지방, 三浦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측량. 이들 장교들의 정찰활동은 단순히 지도제작 이외에도, 『兵要地誌書』의 간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활동 목적도 포함
- 3) 일본은 1880년부터 프랑스식 도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식을 적용했어야 마땅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지도들은 비밀리에 측량된 것이므로 일정한 도식이 사용되지 않았음

47

VI. 요약 및 결론

조선왕조 말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일제의 팽창주의가 고조에 달하면서 정보장교들로 구성된 첩보요원들의 측량침략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작성한 지도는 도식이 확정되기 이전 중세 말 또는 근대지도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지도학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도제작의 도식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48